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파견국가 | 캐나다 | 파견도시 | 밴쿠버 |
| 파견대학 | Langara College | 기간 | 2019. 08. 05. ~ 08. 25. |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제가 다녔던 Langara College는 Canada Line을 타기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바로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다운타운이나 리치몬드 등 밴쿠버에서 갈 수 있는 곳들과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규모는 순천향대만큼 넓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깨끗했습니다. 강의실과 화장실 등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p> |
| 수업 |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 내용으로는 실용적인 영어표현, 캐나다의 동전, 국가별 문화차이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매 수업시작 전에 일상생활에서 쓰일 만한 실용적인 영어표현 하나를 배우고 짝을 만들어 연습하여 보았습니다. 이후 다른 것들은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매번 조를 번갈아 가면서 배운 것을 공유하거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합니다. 학교에 가서 OT하는날 Listening Test 를 보고 반을 나눠서 분반수업을 하게 됩니다. 과제는 반마다 좀 달랐습니다. 저희 반은 1주일에 한번 주말에 저널을 쓰고 월요일에 검사를 했습니다. 또한 매일 숙제가 있었는데 숙제는 주로 바인더에서 내주었습니다. 검사는 주로 숙제를 내 준 다음날에 조를 이루거나 짝을 이루어 공유하였습니다. 외부 활동을 하는 날에는 종이의 내용을 채우는 숙제가 있었습니다.</p> |

| | |
|------|--|
| 필드트립 |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Discovery Vancouver은 밴쿠버의 유명한 곳을 투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조에 인솔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준비물과 추가비용은 없습니다.</p> <p>아쿠아리움과 뮤지엄도 가는데 이것 또한 준비물이나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휘슬러 트립 때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편한 복장이 좋습니다. 고도가 높아 숨기 때문에 긴팔을 입는게 좋습니다. 제가 가는 날에는 비가 와서 후드티를 입어도 추웠습니다. 추가비용은 없습니다.</p> <p>카약은 제가 했던 Activity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입니다. 2인1조로 타게 되는데 오랜 시간 카약을 하면서 햇빛이 매우 뜨거워서 많이 타기 때문에 선크림은 꼭 바르고 타는게 좋습니다. 제가 탄 카약 뒷자리에는 물이 차 있어서 타자마자 하의가 젖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여분의 옷을 챙겨오는 것을 추천합니다.</p>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밴쿠버의 날씨는 전반적으로 서늘하니 좋았습니다. 한국의 가을 같았습니다. 첫째주에는 낮에는 26도까지 올라가서 조금 덥긴 하였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였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에는 긴팔을 입어야 했습니다. 둘째주부터는 낮에도 서늘하였습니다. 학교 교실안에도 조금 추웠습니다. 비는 한 번 왔습니다.</p> |
| 안전 | <p>현지 안전 상황</p> <p>생각보다 안전합니다. 홈리스가 많은 거리에 가면 조금 무섭긴 하지만 무시하고 지나가면 건들지 않습니다.</p> |
| 숙소 | <p>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의 경우에는 미혼 여성과 강아지2마리가 혼자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들도 없어서 집이 너무 조용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아주머니께서 매우 외향적이셨고 오히려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좋았습니다. 저와 같은 기간 머무는 일 본인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둘 다 약속이 없는 날에는 드라이브를 시켜 주셨습니다. 집은 복층으로 되어있었고 저의 방은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p> |

| | |
|----|--|
| | <p>다. 그래서 딱히 잘 때 덤거나 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집마다 주는 방이 반지하, 지하1층 인 집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홈스테이 주인에게 방이 몇 층이냐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집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다녔습니다. 빨래는 매주 토요일에 한번에 모아서 세탁실에 내려놓으면 알아서 건조기까지 돌려 주셨습니다. 샤워시간은 10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p> <p>전압은 우리나라와 달리 110v를 사용하기 때문에 돼지코를 사용하여 변환 시킬 때 전압이 매우 약했습니다. 고데기를 할 때도 열이 오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p> |
| 식사 | <p>학교식당 () 외부식당 (v) 기타 (v)</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에는 집에서 시리얼을 먹었고 점심은 홈맘이 챙겨준 샌드위치로 해결을 하였고, 주로 학교가 끝난 후에는 놀러 갔기 때문에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해결한 것은 5번정도입니다.</p> |
| 교통 | <p>시내교통 관련</p> <p>집에서 버스를 두 번 타고 다녔습니다. 첫번째 버스는 집에서 5분정도 걸어 나가면 탈 수 있었고 두번째 버스는 첫번째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2번 건너면 탈 수 있었습니다. 총 약 1시간 거리 였습니다. 교통은 단순하여 어렵지 않아서 좋는데 놀다가 집에 돌아갈 때 집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집으로 가는 버스 두개 중 하나가 배차간격이 조금 커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항목 | 비용(원)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 1,728,900 | 출국 전 사전납부 |
| 쇼핑 | 600,000 | |
| 여행(식비포함) | 300,000 | |
| 기타(약값,유심,홈스테이 선물 등) | 100,000 | |
| 합계 | 1,000,000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홈스테이 가족에게 미리 이메일로 챙겨 할 것에 대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는 슬리퍼를 신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집이라면 미리 슬리퍼를 챙겨 가야합니다.

유심은 한국에서 주문해서 갔습니다.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Google Map을 사용하려면 항상 데이터가 필요했고 수업 중에 휴대폰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질 때가 있기 때문에 유심을 사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T-mobile과 AT&T가 있는데 T-mobile은 가끔 데이터가 안 터져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AT&T를 사용하였는데 한번도 안 터진 적 없이 아주 잘 사용하다 왔습니다.

홈스테이 선물을 준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김과 미역 삼계탕 재료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가기전에 미리 좋아하는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김을 좋아한다고 하셨고 미역을 먹어 보고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홈맘은 혈압이 높아질 때가 있다며 한국에서 여름에 열을 내리려고 먹는 삼계탕을 먹어 보고싶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날 삼계탕을 해드렸고 홈맘은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미리 홈스테이 가족에게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기전에 캐리어를 너무 꽉 채워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올 때 짐이 늘기 때문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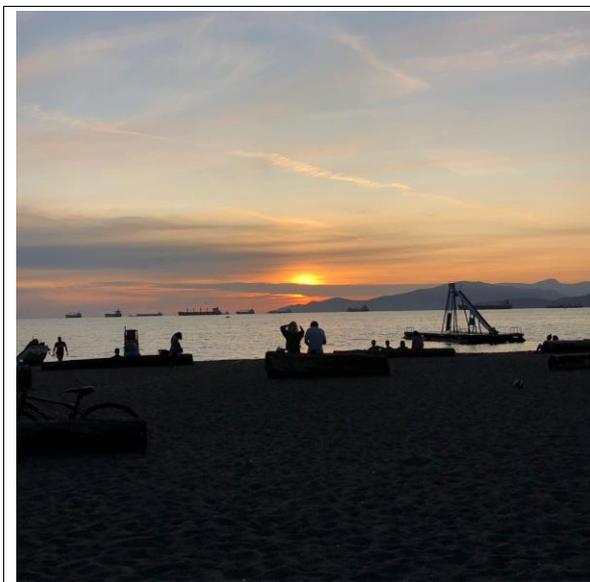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소하였습니다. 홈스테이라는 것도 처음 해 보았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녀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생각보다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도 생각보다 길이 단순하게 되어있어서 적응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반에는 일본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과 한국말도 알려주고 일본어도 배우며 서로의 국가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배운 것 같습니다. 가기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유익한 3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교환학생이나 다른 해외봉사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단기어학연수의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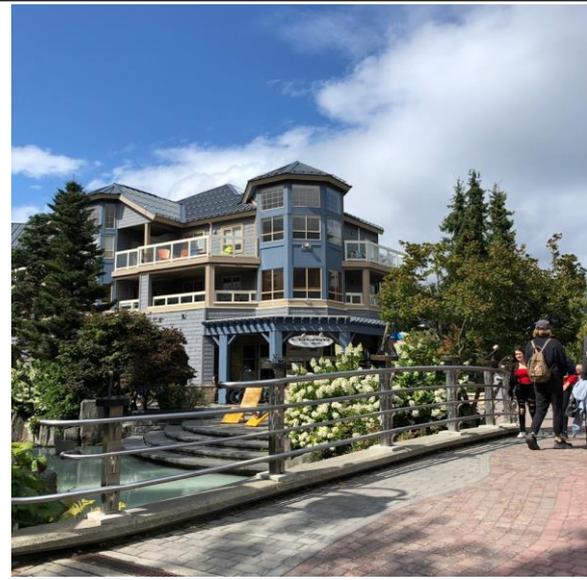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English bay beach



PNE/Playland



Whistler



Capilano suspension bridge park



Richmond night market



The Gastown Steam clock